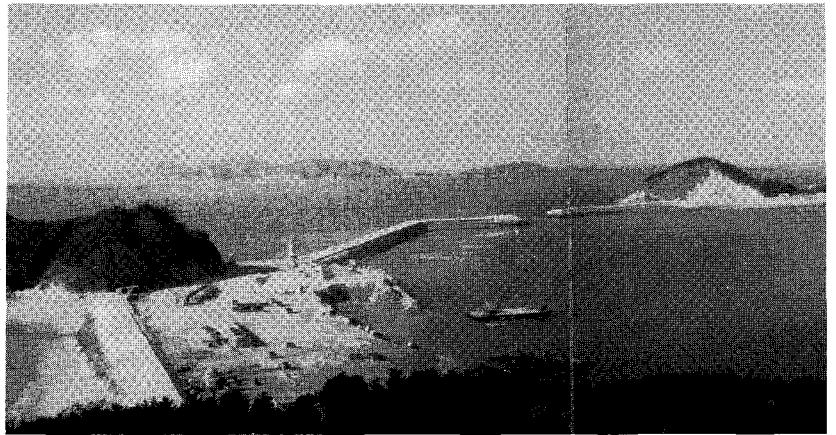


送 舊  
迎 新

## ‘漁港韓國’ ’92座標

# 流通·加工基地 기능도 갖추는 등 附加價値높여야

辛 英 泰 <韓國農村經濟研究院責任研究員>



어항은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보루일 뿐 아니라 어업생산의 기반이고 어민생활의 근거지

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수산부문예산 중에서 어항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즉 금년도 수산부문 총예산은 1861억2천만원, 사업비 총액이 1635억5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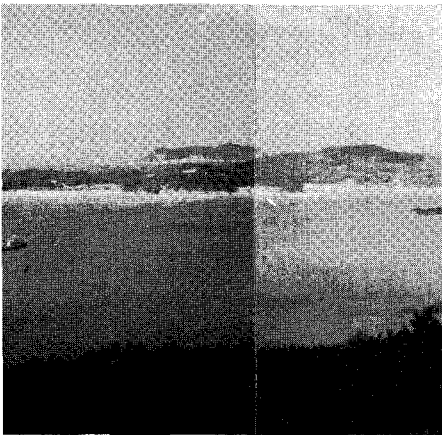
1백만원인데 어항사업비가 634억7천2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4.1%, 사업비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항에 대한 사업비의 절대액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으나 전체 예산 내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7년 어항사업비는 473억8천5백만원으로서 전체 수산예산의 40.7%, 사업비 총액의 45.4%를 차지함으

로써 금년 예산 및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각각 6.6% 포인트씩 높았다. 물론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따라서 각 부문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만으로 지금까지의 예산배정 결과를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대상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적 여건 및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어항 그 자체에 대한 성격을 규명해 보고 최근 우리나라 수산업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국내외 여건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금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어항에 대한 기본성격으로서 어항은 외형적으로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나 일반 재화나 건물 등과는 크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흔히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또는 하부구조 (Infra Structure)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도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이 갖는 특성은 생산 또는 부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그 효과는 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며, 불특정다수가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재 (Common Goods)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다음,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 변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으로 대표되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이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언론이나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계속 소개되어 잘 알고 있으나 수산업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각국이 농산물에 대해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 수산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농산물처럼 수출국 입장에서 과잉생산현상을 보이는 품목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협상진행결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약 농산물협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접근을 이루고 나면 수산물에 대해 도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농산물협상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 철폐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즉 생산증대를 위한 생산요소의 지원이나 높은 수준의 가격 유지를 위한 어떤 형태의 보조금 지불도 삭감토록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영세한 생산구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주요 협상내용의 하나가 될 전망으로서 이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이다. 국민소득이 이미 5,000불을 넘어섰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복잡한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도맡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 이미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는 이미 끝나 새로운 조직이 생겨났고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예정으로 멀지 않아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러면 이상에서 살펴 본 어항의 기본성격 및 국내외 여건 변화가 금후의 어항개발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따라